

구약의 루아흐(*ruah*)와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의 중요성*

김도형(서울기독대)

1. 서론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루아흐(*ruah*)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신약성서와 달리 그 빈도와 분량 면에서 국내·외 모두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 루아흐 연구는 다양한 방식에서 꾸준한 관심을 끌었다.¹ 20세기 이후 연구 초창기에는 구약 전반에 나오는 루

* 본 논문은 2024년 서울기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제25차 한국오순절신학회 학술발표회(2024.10.21., 건신대학원대학교)에서 발표되었고 일부 수정하였다.

1 1900년대 이후 국외 구약학자들의 루아흐 연구 목록에 관하여는 한사무엘, “구약의 영(*ruah*, 루아흐) 연구사”, in 로이드 R. 니브, 『구약의 성령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65(각주 1번 참고). 원제는 Lloyd R. Neve,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okyo: Seibunsha, 1972); 1970년대 이후 국내 구약학자들의 루아흐 연구에 관한 논문들은 정규남, “구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 in 『구약신학의 맥』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327-355; 차준희, “예언과 영: ‘문서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5집(1998), 53-54(각주 11번 참고)를 보라. 또한, 1990년대 이후 루아흐에 관한 연구사를 기반으로 학위 논문을 발표한 국내의 학자들은 다음

아흐의 용례와 쓰임새 등 일반적인 언어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종교사적인 접근으로서 루아흐의 개념이나 의미의 기원과 변화 또는 역사적 발전 및 문학적 특징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신학적인 접근법을 넘어서 구약의 시대별 단계를 통해 구분하거나 일정한 본문 구절로 한정하면서 역사서와 예언서 등 책별로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루아흐를 언급했던 저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본문의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추세이다.²

구약에서 루아흐의 첫 등장은 창세기 1장 2절이며, 이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다각적으로 제기되었다.³ 루아흐 이해는 고대 근동(ANE)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연구되기도 한다.⁴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자연물과 같은 존재로서 바람이나 폭풍이며, 사람과 관련하여 생기, 호흡, 생명력으로도 해석되고, 하나님과 연결하여 영적인 힘과 권능이나 능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루아흐가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의 매개체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과 같다. M Dreytza, *Der theologische Gebrauch von Ruah im Alten Testament: eine wort-und satzsemantische Studie* (Basel: Brunnen Verlag, 1990); 이사야, “포로기 이후 예언서의 루아흐 야웨”(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7); H. Samuel, *Der “Geist” in den Saul- und Davidgeschichten des I. Samuelbuches* (Arbeiten zur Bibel und ihrer Geschichte 51;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5); 김주현,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ruah*)의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 『구약논단』 제92집(2024.6), 106-134를 참고하라.

- 2 윌프 힐레브란트, 『구약의 성령 신학 입문』 김진섭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5), 27-34. 원제는 W. Hildebrandt,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5); 한사무엘, “구약의 영(*ruah*, 루아흐) 연구사”, 265-303(특히, 296을 보라).
- 3 최근에 마술-신화 우주론(magico-mythical cosmology)으로 해석한 논문으로는 Petrus J. van Dyk, “The Spirit of God, or Is It?”, *HTS Theolog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73(3) (2017), 1-8이 있다.
- 4 힐레브란트, 『구약의 성령 신학 입문』, 29.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모세가 칠십 장로와 더불어 다베라(Taberah) 광야에서 루아흐가 임한 것(민 11:25)과 루아흐가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모세의 소망(민 11:29) 및 포로기 이후 예언서로 알려진 요엘(2:28-29)을 제외하면 구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일반 백성에게 임한다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편, 루아흐가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예리고(Jericho) 성을 함락하기 위해 여호와와의 군대 대장(*sar-šbu' YHWH*)⁵의 응답을 받고 순종하여 정복했으나(수 5:13-15), 두 번째 아이(Ai) 성을 처음 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대화하는 모습이 언급되지 않는다(수 7:2-5).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아이 성을 공격했을 때 패배했으며,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뒤 아간(Achan)과 관련된 범죄 사건을 해결한 후 아이 성을 점령한다(수 7:6-8:29). 여호수아로서는 예리고와 아이 성을 함락하는 성패의 결정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와의 군대 장관, 만일 그를 하나님의 루아흐(?)로 고려한다면 그와의 만남은 전쟁의 승패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즉, 루아흐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왜 중요한가?⁶ 차준희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고대 이스라엘 초기에 불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임하였으나 시대가 지

5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shal-n' 'aleykā me'al ragelekā ki hammāqôm 'asher 'attā 'ōmed 'alayv 'adhemath-qōdesh hū'* 출 3:5)는 말씀과 여호와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씀(*shal-na'alekā me'al ragelekā ki hammāqôm 'asher 'attā 'ōmed 'alayv qōdbesh hū'* 수 5:15)의 언어 사용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언급한 여호와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야곱이 압락 강가에서 '어떤 사람'(יִשְׁ)과 날이 세도록 씨름을 하는데(창 32:24),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다만 그것이 신인동형론적인 묘사라는 주장도 있다. 천사무엘, "구약성서와 하나님의 영", 제102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2016), 208.

6 Andreas J. Köstenberger, "What Does It Mean Be Filled with the Spirit? A Biblical Investigation", *JETS* 40/2(June 1997), 229-240.

나갈수록,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일반적인 개념으로 발전한다는 베스터만(C. Westermann)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루아흐가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 야웨의 활동력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했다.⁷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루아흐 변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신인식⁸ 변화에 관한 이슈인지 논의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의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이며,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루아흐가 구약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고 모든 백성에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본 논문은 우선 히브리 성서(MT)와 70인역(LXX)에 나오는 루아흐의 분포와 이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인지 간략히 다룬다. 이는 루아흐에 관하여 무엇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구약성서에 언급된 루아흐의 임재가 지속되는 문제와 그렇지 못한 부분의 사례들을 검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루아흐⁹ 임재의 중요성과 인간의 자발성(willingness) 문제가 개인과 신앙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제안하려고 한다.

7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성경과 신학』 20집(1996), 359-392(특히 378-386를 보라).

8 이사야, “하나님의 영과 신인식: 이사야와 에스겔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62집(2016.12), 44-69.

9 이 글에서는 루아흐 엘로힘(*rūah 'lōhim*)과 사사기에서 대부분 언급되는 루아흐 야웨(*rūah YHWH*)를 ‘하나님의 루아흐’로 통칭해서 사용한다.

2. 구약의 루아흐 이해: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그동안 구약의 루아흐 연구자들은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와 문맥의 흐름을 살펴왔다. 이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거론되었으므로 이 글에서 재차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대신 구약성서에서 언급된 루아흐의 빈도수를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알려진 대로, 구약에서 루아흐는 총 378회 언급되었다.¹⁰ 다니엘서 아람어 부분에 나오는 11회를 합하면 총 389회이다. 히브리 성서(MT)의 3분법 순서에 따라 오경에서 38회 언급된다. 전기 예언서에 해당하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47회이며, 후기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154회 나온다. 마지막 성문서는 시편(39회), 전도서(24회), 잠언(21회) 등에서 각각 20회 이상 총 139회 등장한다.¹¹ 루아흐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책은 예언서 가운데 에스겔(52회)과 이사야(51회)이다. 반면, 루아흐가 전혀 나오지 않는 책으로는 오경에서 레위기이며, 예언서에서 오바다, 나훔이고 성문서는 룻기, 아가, 에스더 등이 있다. 이처럼 히브리 성서에서 루아흐의 언급은 오경부터 시작하여 사사기와 사무엘 전반부 등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상당 부분 등장하지만, 남유다 왕국 포로기 이전에 해당하는 주전 8-7세기 예언서 등에서 잠시 줄어들어 드는 추세이다가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예언서에 많이 나타난다.¹² 히브리 성서에서는 루아흐가 세 가지 문서 가운데 예언서에서 201회 등장함으로써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헬라이어 70인역(LXX) 성서의 4분법에 의해 루아흐의 빈도를 다시

10 A. Even-Shoshan, ed.,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Jerusalem: Kiryat Sefer Publishing House LTD., 1993), 1063-1066.

11 힐데브란트, 『구약의 성령 신학 입문』, 27-28.

12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360-364.

분류해보자. 이 순서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루아흐는 오경(38회)부터 역사서(66회), 시가서(115회), 예언서(159회)에 이르기까지 그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구약성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오경부터 예언서 등 뒷부분으로 갈수록 적용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다. 두 개의 구약성서 모두 오경과 전기 예언서 또는 역사서 부분에서 루아흐가 증가하지만, 후기 예언서와 성문서에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성서의 마지막을 향하는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¹³의 관점으로 볼 때 루아흐는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개념과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책들 사이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약에 등장하는 루아흐 연구가 신약성서의 프뉴마(*Pneuma*)에 비할 때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신약에서 프뉴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충만하고 구체적인 개념(행 1:8, 2:4; 롬 8:9, 14; 고전 2:10-14; 6:19; 갈 5:16 등)으로 나오는 반면, 구약은 루아흐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나 시대에 따른 변천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다음은 힐데브란트(W. Hildebrandt)가 제시한 구약성서의 루아흐 분석이다. 그는 루아흐가 인류학과 심리학의 용어라고 설명하면서 물리적인 것부터 심리적·정서적인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과 연결하여 이것은 인간과 관계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⁴ 힐데브란트는 레브(*leb*)를 사람의 ‘마음’이나 ‘심장’으로 해석할 때 그 발단은 사람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며(렘 23:16; 참조 겔 13:2-3), 루아흐의 경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 즉 내적 인간이라고 했다. 더 나아

13 구약 목시문학의 초기단계(Proto-Apocalyptic)으로 알려진 스가라 9-14장 가운데 헬라 시대에 대한 예언이 등장한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9:13, 개역개정).

14 힐데브란트, 『구약의 성령 신학 입문』, 38-39, 41.

가 힐데브란트는 루아흐가 긍정적인 부분 이외에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과 기질 및 성향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했다.¹⁵ 또한, 그는 인간의 기질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바로(Pharoah)의 경우 ‘마음(*ruah*) 이 번민’(창 41:8)을 의미하거나 부부 사이에서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남편의 ‘질투심’(*ruah qine'ah*)을 유발할 수 있고(민 5:14, 30), 헤스본 왕 시 혼처럼 그의 ‘성품’(*ruah*)을 완강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신 2:30). 때로는 ‘음란한 마음’(*ruah zenunim*)이 백성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그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다(호 4:12, 5:4). 힐데브란트에 따르면, 잠언의 교훈에서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ruah*)을 상하게 하며, 마음의 근심은 ‘심령’(*ruah*)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잠 15:4, 13). 따라서 자신의 ‘마음’(*ruah*)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잠 25:28; 참조 욥 15:13).¹⁶ 결과적으로 인간은 ‘호흡’이나 ‘숨’, ‘기운’(*ruah*)이 없으면 죽음에 이르므로(시 104:29, 욥 9:18, 17:1, 19:17) 루아흐의 소유를 여호와께 맡길 수밖에 없다(시 31:6(5)). 이처럼 루아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흡(*nepheš*)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생기’(*ruah*, 렘 10:14, 51:17)를 돕는 역할을 감당한다. 남 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어 기도했을 때 그는 심령의 생명(*hayyey ruhi*)으로서 루아흐 회복을 원했으며(사 38:16), 에스겔의 환상 장면에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ruah*)가 돌며 하나님의 루아흐가 그것들을 살아나게 하셨다(겔 37:5-10).¹⁷

이와 같이 구약에서 루아흐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근동 문헌(ANET)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 자연론적 차원에서 ‘바람’과 인간론적 차원에

15 힐데브란트, 『구약의 성령 신학 입문』, 45.

16 힐데브란트, 『구약의 성령 신학 입문』, 42-44.

17 힐데브란트, 『구약의 성령 신학 입문』, 40-41.

서 ‘마음’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특히, 루아흐의 용례에 있어서 생명의 숨과 호흡(루아흐)이 그 안에 있느냐에 따라(창 6:17; 7:15, 22) 생물을 포함하여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된 횟수는 총 129회로 알려져 있다.¹⁸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사사시대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에게 임하는 내용은 다양한 모습으로 능동적으로 활동성 있게 다가온다(삿 3:10, 5:34, 11:29, 13:25, 14:5, 19; 15:14). 한편, 차준희는 슈미트(W. H. Schmidt)를 인용하며 ‘활동을 하는 존재’로서 루아흐와 황홀경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루아흐라는 매개를 통해 임하는 현상 두 가지가 있다고 간주하였다.¹⁹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 하나님의 루아흐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권능의 도구에서 하나님 존재 자체까지 확장됨으로써 ‘신인식론적인 대전환’²⁰으로 언급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약성서만의 특징이다. 이와 비슷하게 한동구는 하나님의 루아흐 개념의 변화에 따른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 이를 유일신론의 등장, 즉 ‘하나님의 영의 존재론적 변화’²¹로 설명한다. 그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초기 이스라엘부터 왕국 시대까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은 존재에서 포로기와 포로 후기의 문헌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인격성이 부여되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루아흐로 보았다. 가령 이사야 30장 27-33절에서 언급되는바 앓수르를 물리치는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의 활동을 인간과 유비하여 문학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

18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성경과 신학』(1996), 373.

19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380-382.

20 이사야, “하나님의 영과 신인식: 이사야와 에스겔을 중심으로”, 64.

21 한동구, “구약성서의 성령론: 하나님의 영의 존재론적 성격의 변화”, 제102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6), 13-22. 이러한 변화가 신약성서 요한서신에 등장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요한 1서 4:13).

한 루아흐가 인간에게 임할 때²²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니브(L.R. Neve)는 루아흐의 인격화(personalizing) 존재에 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니브는 스키너(J. Skinner)가 인격화의 한 증거로써 이사야 63장 10절(“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개역개정)을 제시하지만, 구약에서 루아흐의 인격화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니브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루아흐 인격화 과정을 위한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루아흐는 야웨의 거룩한 의지에 해당될 수 있어도 감정이나 성격으로 해석하여 인격화로 간주하는 것에는 반대한다.²³ 그렇다면, 니브는 루아흐의 인격화를 왜 부정하는가? 그것이 구약성서 해석과 하나님의 루아흐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질문보다 더욱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했던 이들에게서 떠나갔거나 함께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시대의 독자에게 루아흐에 관하여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고와 시야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하나님의 루아흐: 일시적 머무름인가, 계속적 임재인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특정 인물들에게 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루아흐가 떠나가는 장면도 등장하는데 그

22 루아흐의 임재에 관한 우리말 번역에 관하여는 정일승, “사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의 임재 현상에 대한 우리말 번역 제언”, 『성경원문연구』 제40호(2017.4), 7-29를 보라.

23 니브, 『구약의 성령론』, 233-243.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구약의 루아흐에 관한 의미의 폭은 대단히 넓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바람으로서의 루아흐, 사람의 루아흐, 그리고 하나님의 루아흐이다.²⁴ 이것은 자연적인 의미와 인간적인 의미, 신인식론적, 또는 신학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²⁵ 바람이나 호흡과 같은 자연적인 의미는 일종의 감각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후대에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²⁶ 인간적인 의미는 ‘인간의 감정과 성향을 지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일종의 황홀경과 같은 맥락이다. 신인식론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루아흐 사역과 활동’의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루아흐 주변의 단어와 문장의 전후를 살펴보는 문맥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²⁷ 사사 시대 기드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루아흐(삿 6:34)는 구원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상황에 있을 때를 전제하고 구원이 성취되면 루아흐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준다(삿 8:23).²⁸ 차준희는 이스라엘 초기 시대에 특별히 임한 하나님의 루아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든 생물체를 포함하여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루아흐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구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
- 24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368-387; M. Green, *I Believe the Holy Spirit* (Michigan: Edermans, 2004), 4-5; J. Robson, *Word and Spirit in Ezekiel* (JSOT 447; New York: T&T Clark, 2006), 20-21.
- 25 이사야, “야웨 임재의 상징과 영”, 『구약논단』 제30집(2008.12), 185-198(특히 186-187를 보라). 김혜윤, “구약성경의 ‘루아흐’(ruah): 의미론적 고찰과 개념상의 진화 연구”, 『가톨릭신학과사상』 제68호(2011), 9-49(13).
- 26 한사무엘, “구약의 영(ruah, 루아흐) 연구사”, 『구약의 성령론』, 267-268.
- 27 힐데브란트, 『구약의 성령 신학 입문』, 27.
- 28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개역개정).

임하는 일반적인 루아흐를 넘어서서 루아흐의 특별한 수여에 대하여
도 기록하고 있다. 루아흐의 특별한 수여에 대하여는 주로 이스라엘
초기 시대에 일어난다. ...²⁹

더 나아가 차준희는 알버트(R. Albert)와 베스터만 등 일부 학자들을
인용하면서 사사 시대와 달리 왕국 시대 하나님의 루아흐는 야웨의 기
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지속적으로 머무는 은사가 된다는 것이다.³⁰ 이전
에 베스터만이 사사 시대 루아흐 활동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루아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위기 상
황에서 활동한다. 둘째, 하나님의 루아흐는 사람이 설립한 공식기관에
위임되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 특별한 일을 한다. 셋째, 그는 주어진 명
령에 의해 움직이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루아흐 능력이 백성을 자발
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넷째, 자발적으로 집결된 집단은 소수의 집단
을 형성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루아흐는 위기의 상황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제한된다.³¹ 이렇게 사사에게 임한 특징들은 하나님의 루아흐
가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로 이어지면서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와 더불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루아흐는 ‘계시의 매개체’
로서 예언과 동일하며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³²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루아흐
가 항상 임한 것이라는 명확성을 거론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
웨의 발언 이후에 루아흐가 왜 떠나는지, 또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

29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378.

30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379-380.

31 C. Westermann, “Geist in Alten Testament”, 225;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379. 각주 50
번에서 재인용.

32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385-388. 특히, 384페이지 각주 64번에 언급된 구약 본문을
그대로 재인용한다(사 6:8-9; 9:8(마소라본문 9, 7); 렘 20:7-9; 23:29 등).

지 설명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 따라서 필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한 후 계속해서 머무르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몇 가지 사례를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하는 것과 떠난 것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으로 기름을 붓는 장면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vattiṣ laḥ rūaḥ YHWH*)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veriaḥ YHWH sārā me'im šāül*)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ūbbi^a tbatū rūaḥ rā'ā me'eth YHWH*)(13-14절, 개역개정).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야웨)의 루아흐는 다윗에게 임하였으며(*ṣālah*), 사울에게서 떠났고(*sūr*), 여호와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을 보내기도 하셨다(삿 9:23).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의 경우에 히브리어 단어 딘(*diyn*)³³ 해석의 어려움은 있으나, 하나님의 루아흐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언급되기도 한다.³⁴

33 이 단어는 ‘머무르다’, ‘통치하다’, ‘지속하다’, ‘경쟁하다’ 등 네 가지 가능성으로 제시된다. Francis Brown eds., *The New Brown, Driver, and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192. 개역개정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창 6:3)로 번역되어 있다.

34 이 단어(*diyn*)에 대한 번역이 한글과 영어 사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됴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 6:3, 개역개정); And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ever, for he is indeed flesh; yet his days shall be one hundred and twenty years.”(NKJV); “spirit shall not **abide** in mortals forever, for they are flesh; their days shall be one hundred twenty years.”(NRSV);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man forever, for he is mortal; his days will be a hundred and twenty years.”(Gen 6:3, NIV)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루아흐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기술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측면도 있겠지만 루아흐가 임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삼손의 경우에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여호와와의 루아흐가 4회(삿 13:25, 14:6, 19, 15:14)나 임했음에도 그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삼손은 그에게 루아흐가 마지막으로 임한 이후에도 가사(Gaza)에서 어느 기생(harlot)을 만났으며, 또한 소렉 골짜기(Valley of Sorek)에서 들릴라(Delilah)를 사랑했다(삿 16:1, 4).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루아흐가 삼손을 육체적으로 강하게 바꿀 수는 있었지만, 그의 생각과 행동까지 모두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가 개인 삶의 변화와 연결해서 볼 때 정규남은 구약에서 묘사되는 인물들의 행위를 루아흐의 임재를 거둬낸 것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구약의 본문에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으로 거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³⁵ 이러한 질문에 관하여 정규남은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처럼 스스로 중생을 경험할 수 없기에 성령을 통해 중생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³⁶ 그러나 구약성서는 신약과 달리 영적 구원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구약은 루아흐의 머무름과 떠남에 대한 묘사가 있을 뿐이며 하나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것과 유일신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백성에게 부족하여 우상숭배의 유혹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일견 설득력이 있다.³⁷

왈부르트(J. Walvoord) 역시 하나님의 루아흐가 구약에서 모든 사람

35 정규남, “구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 344.

36 정규남, “구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 344-345.

37 정규남, “구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 350.

에게 거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와 영’이 사울을 떠난 사례의 일환으로 설명한다(삼상 16:14).³⁸ 이것은 하나님의 루아흐가 일시적으로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삼손과 더불어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거나(삼하 11장)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함으로써 분별력이 약해진 것(왕상 11장)과도 크게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루아흐의 임시적 머무름과 지속적인 임재에 관한 논란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인간의 자의식이나 자발성과 관련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4.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의 중요성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의 여부와 관련하여 성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신약성서와의 상보적 관계에서 구약의 루아흐와 하나님의 루아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구약과 신약이 엄연히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루아흐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가 적극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루아흐가 아니라 인격(person)이나 인격적(personal)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³⁹ 김정우는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초월성과 내재성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가까이 있으나 멀리 계신 하나님(렘 23:23-24)과 멀리 있으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시 139:1-18)으로 설명하였다.⁴⁰ 그러

38 J. Walvoord,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5), 152.

39 천사무엘, “구약성서와 하나님의 영”, 제102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6), 207-216.

40 김정우, “구약의 영성: 멀리 계신 하나님(Deus Absconditus)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Deus

나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구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한적으로 등장하지만(왕하 2:9, 15-16; 대상 12:18; 시 51:11; 사 63:10-11, 개정개역), 하나님의 루아흐가 함께한다거나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의 또 다른 표현으로 앞서 언급한 ‘거듭남’ 또는 ‘성령 충만’이 인간 경험의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쾨스텐버거(Andreas J. Köstenberger)는 성서에서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였다. 그는 구약의 경우 ‘다가옴’(coming upon), 성전(temple) 용어와 함께 ‘가득함’(filling)이라는 용어가 결합되었고, 종말론적이며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회복된 계약 공동체 차원에서 그 의미가 사용된다고 보았다.⁴¹ 쾨스텐버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순종적이고 지혜롭게 살며 개인이나 집단이든지 성령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구약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회개나 죄에 대한 고백과 연결된 부분에서 한 군데도 찾을 수 없다고 설파한다. 다만, 죄의 고백과 성령의 충만함 사이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필자가 이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 루아흐 임재의 중요성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루아흐에 관하여 머무름이나 임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에 틀림없다. 흥미로운 것은 우드(Leon J. Wood)의 경우 구약

Revelatus)의 변증법적 포월성(抱越性): 렘 23:23-25와 시 139:13-18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35집(2010), 10-34.

41 Andreas J. Köstenberger, “What Does It Mean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A Biblical Investigation”, *JETS* 40/2(1997), 229-240.

42 Köstenberger, “What Does It Mean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A Biblical Investigation”, 228-239.

시대 영적 중생(spiritual renewal)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는 구약에서 직접적인 문자의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구약의 인물들 역시 영적 중생을 경험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 기록된 시에서 고백과 기도를 통해 이런 경우를 대표한다는 점이다(시 51:10-12[히 12-14]).⁴³ 다윗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변화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한다. 물론 이런 한 가지 사례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윗이 실제로 영적 중생을 경험했는지 알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네 번씩이나 임했음에도(삿 13:25, 14:6, 19, 15:14) 그의 행동에서 추측해볼 때 영적 중생이나 회개를 했다고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재하는 것이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곧 죄의 고백이나 죄의 사함과 일치된다고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 있다. 다분히 하나님의 루아흐가 충만하다거나 여호와와 루아흐가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함께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구약성서는 무슨 이유로 포로기 시대 이후에 와서야 하나님의 루아흐가 이전과 달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가?(욘 2:28-29) 또한, 히브리 성서(MT)의 시간적 순서와 헬라이어 70인역(LXX) 배열 방식에 따라서 이를 살펴볼 때 구약의 루아흐 또는 하나님의 루아흐 인용도와 전개 특징은 무엇인가? 이를 설명하기 전에 구약성서의 구성과 흐름을 우선 소개한다. 이를 텍스트의 내러티브 구성과 더불어 스토리텔링(Story-telling)⁴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43 레온 J. 우드, 『구약성경의 성령론』 이순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81-92. 원제는 Leon J. Wood,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The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44 김정희,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1. 히브리 성서(MT)	오경(과거)	예언서(미래)	성문서(현재)	
2. 70인역(LXX)	오경(발단)	역사서(전개)	시가서(절정)	예언서(결말)
3. 루아흐 인식 3단계	자연(서론)	사람(본론)	하나님(결론)	
4. 루아흐 인식 4단계	바람(발단)	호흡(전개)	영적인 힘(절정)	하나님의 루아흐(결말)

히브리 성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3분법 구성을 보여준다. 오경은 시대적인 배경이나 인물과 사건이 과거이다. 예언서는 발신자(야웨)와 수신자(백성) 사이에서 중개자(예언자)가 전달적 관계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책이다. 성문서는 구약시대 마지막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시대의 시점에서 볼 때 현재이다. 70인역은 논리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차원의 신학적인 관점과 순서에 따른 4분법의 책이다. 이는 헬라 시대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적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약에 등장하는 루아흐도 이들 책의 성격에 따라 3분법 또는 4분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창세기 첫 부분에서 루아흐는 바람과 같은 자연의 모습으로 시작하여 이후에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다가 나중에는 루아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3단계 도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⁵ 물론, 히브리 성서와 70인역 모두 전기 예언서와 성문서 등에서 일부 순서의 차이로 인하여 혼란스러움이 없지는 않으나 정규남은 구약에서 루아흐의 언어적 고찰을 통해 ‘바람 - 호흡 - 영적인 힘 - 하나님의 영’의 네 단계로 분류한 바 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 ‘계시의 점진적 특성’을 의미한다고 간주하였다.⁴⁶ 따라서 이를 수용하여 도식화할 때 루아흐는 바람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루아흐까지 발전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45 앞의 각주 25를 참고하라.

46 정규남, 『구약신학의 맥』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327-350.

과정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세세하게 분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인식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튼(J. Barton)은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관하여 시편이 일반적으로 ‘주 앞에서’(*millepāneykā*, 시 51:11[히 51:13]), ‘주의 앞에서’(*mipāneykā*, 시 139:7) 또는 ‘주와 함께’(‘*immāk*, 시 73:23)라는 언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한다고 했다.⁴⁷ 이것은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 표현이며, ‘내 얼굴’(*phānāy*), ‘주의 얼굴’(*paneykā*, 시 27:8), ‘하나님의 얼굴’(*peney ’elohim*, 시 42:2[히 42:3]), ‘그의 얼굴’(*phāneymô*, 시 11:7)도 비슷한 의미이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현존에 관한 동의적 평행이라고 볼 수 있다.⁴⁸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 앞에서’(*lipheney hā’elohim* 출 18:12, 신 16:11, 수 24:1; 출 23:23 참고), 또는 ‘주 앞에서’(*mipāneykā*, 사 64:1-3[히 63:19-64:2]),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YHWH ’imāk* 창 26:28),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YHWH ’imô*, 창 39:2-3; 사 6:12-13, 삼상 1:18, 16:18; 왕하 18:7; 대하 32:7-8)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루아흐는 시대가 바뀌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힘(power), 하나님의 현존, 임재(presence)의 의미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⁴⁹ 특히, 고대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힘이나 능력으로 임하시다가 왕국 시대 예언자들에게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루아흐에 의해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가능성이 있다

47 John Barton, “The History of Spirituality”, in *The Study of Spirituality*, Cheslyn Jones, eds.,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55-56.

48 천사무엘, “구약성서와 하나님의 영”, 212.

49 천사무엘, “구약성서와 하나님의 영”, 209.

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⁵⁰ 주전 8-7세기 문서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루아흐에 대하여 침묵하는 경향도 엿보인다. 이후 하나님의 루아흐는 계시(Revelation)의 매개체로써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⁵¹ 마침내 하나님의 루아흐와 힘이라는 의미에서 루아흐는 신인식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의 주장대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등장하는 부분에서 루아흐는 등장하지 않으며, 루아흐가 언급되는 부분에서 법궤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⁵²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시 환원하면, 구약의 루아흐와 하나님 루아흐 임재의 중요성 연구의 당위성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약 텍스트를 통한 이러한 논의가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논문의 주제와 다소 동떨어져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루아흐와 관련하여 영성의 위기 속에 처해있는 현대 한국 교회에 조그마한 울림을 줄 수 있다. 이형원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교회의 세속화’와 ‘참된 기독교 영성(Christian spirituality)의 부재’⁵³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구약 예언자들이 선포하는바 신앙적인 모습에는 열정적이지만, 윤리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사는 위선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다(암 5:21-24; 사 1:10-20; 미 6:6-8).⁵⁴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의 논의는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귀착된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

50 엄현섭, “A Study of the Spirit of the God in the Old Testament”, 『신학과 신앙』 13(2002), 155-203.

51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382-384; idem, “구약의 계시”, 『오순절 신학 논단』 Vol. 5(2007.10), 18-19.

52 이사야, “예언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제102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16), 217-227.

53 이형원,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영성 회복을 위한 구약성서적 제언”, 『성경과 신학』 제49권(2009), 1-36(특히 3).

54 이형원,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영성 회복을 위한 구약성서적 제언”, 24.

러 형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루아흐를 경험하지 않을 때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이나 계획으로 인해 실수했던 것처럼, 구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각 개인과 신앙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주장이나 고집을 앞세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록하며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루아흐를 중심으로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루아흐를 의식하며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의 실제적인 체험의 중요성이 다시금 논의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구약에 나타난 루아흐의 연구 방향과 하나님의 루아흐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사항을 다루었다. 신약성서의 성령(*pneuma*)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달리 구약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번역의 다양성으로 제공된 루아흐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이다. 다만 루아흐에 관한 기본적인 의미와 개념이 이미 연구된 만큼 루아흐, 특히 하나님의 루아흐 임재의 중요성이 왜 제기되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할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루아흐 사용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루아흐가 사람에게 임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때의 확연한 차이점으로 인해 사건의 진행이 급선회하거나 전환되는 사례들이나 이와 관련된 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루아흐 이해는 일시적 머무름이나 계속적 임재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특정 인물들에게 임재했다가 떠났다는 것은 이분법적인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간의 내면과 자의식이 강조될수록 하나님의 루아흐는 가려지거나 숨겨진 모습으로 소개될 뿐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루아흐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머무실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생명의 시작과 구원의 은총처럼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선물이면서 또 다른 현존의 모습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모세는 다베라 광야에서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루아흐가 칠십 장로에게 임했을 때 모든 백성에게도 주시도록 원했었다(민 11:24-29). 이후 바벨론 포로기가 지난 뒤 요엘 시대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루아흐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예언되었다(욥 2:28-29(히 3:1-2)). 이런 점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루아흐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미완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대 독자를 포함한 신앙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야(*shúb*) 하는 일이 남아있다(속 1:3, 6, 10:6, 10; 말 3:7, 18, 4:6(히 3:24)).

“...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속 13:9 개역개정).

참고문헌

- 김정우, “구약의 영성: 멀리 계신 하나님(Deus Absconditus)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Deus Revelatus)의 변증법적 포월성(抱越性): 렘 23:23-25와 시 139:13-18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35집(2010), 10-34.
- 김정희,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김주현,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ruah*)의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 『구약논단』 제92집(2026), 106-134.
- 김혜윤, “구약성경의 ‘루아흐’(*ruah*): 의미론적 고찰과 개념상의 진화 연구”, 『가톨릭 신학과사상』 제68호(2011), 9-49.
- 레온 J. 우드, 『구약성경의 성령론』 이순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원제 Wood, Leon J.,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The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 로이드 R. 니브, 『구약의 성령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원제 Neve, Lloyd R.,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okyo: Seibunsha, 1972).
- 엄현섭, “A Study of the Spirit of the God in the Old Testament”, 『신학과 신앙』 13(2002), 155-203.
- 윌프 힐레브란트, 『구약의 성령 신학 입문』 김진섭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5). 원제 Hildebrandt, W.,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5).
- 이사야, “야웨 임재의 상징과 영”, 『구약논단』 제30집(2008.12), 185-198.
- _____, “예언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제102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2016), 217-227.
- 이사야, “하나님의 영과 신인식: 이사야와 에스겔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62집(2016), 44-69.
- 이형원,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영성 회복을 위한 구약성서적 제언”, 『성경과 신학』 제49권(2009), 1-36.
- 정규남, “구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 in 『구약신학의 맥』(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 정일승, “사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의 임재 현상에 대한 우리말 번역 제언”, 『성경원문연구』 제40호(2017.4), 7-29.
-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성경과 신학』 20집(1996), 359-392.
- _____, “예언과 영: ‘문서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5집(1998), 52-83.

- _____, “구약의 계시”, 『오순절 신학 논단』 Vol. 5(2007.10), 9-32.
- _____, “구약에 나타난 창조의 영”, in 로이드 R. 니브, 『구약의 성령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307-336.
- 천사무엘, “구약성서와 하나님의 영”, 제102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016), 207-216.
- 한동구, “구약성서의 성령론: 하나님의 영의 존재론적 성격의 변화”, 제102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6), 13-22.
- 한사무엘, “구약의 영(*ruah*, 루아흐) 연구사”, in 로이드 R. 니브, 『구약의 성령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65-303.
- Barton, John, “The History of Spirituality”, in *The Study of Spirituality*, Cheslyn Jones, eds.,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Brown, Francis, eds., *The New Brown, Driver, and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 Dreytza, M., *Der theologische Gebrauch von Ruah im Alten Testament: eine wort-und satzsemantische Studie* (Basel: Brunnen Verlag, 1990).
- Even-Shoshan, A., ed.,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Jerusalem: Kiryat Sefer Publishing House LTD., 1993).
- Green, M., *I Believe the Holy Spirit* (Michigan: Edermans, 2004).
- Samuel, H., *Der “Geist” in den Saul- und Davidgeschichten des 1. Samuelbuches* (Arbeiten zur Bibel und ihrer Geschichte 51;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5).
- Köstenberger, Andreas J., “What Does It Mean Be Filled with the Spirit? A Biblical Investigation”, *JETS* 40/2(June 1997), 229-240.
- Robson, J., *Word and Spirit in Ezekiel* (JSOT 447; New York: T&T Clark, 2006).
- van Dyk, Petrus J., “The Spirit of God, or is it?”, *HTS Theologi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73(3)(2017), 1-8.
- Walvoord, J.,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5).

검색어

루아흐(*ruah*),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임재, 자의식, 회개(*shûb*)

[ABSTRACT]

The Meaning of *rûah*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Importance of the Presence of God's *rûah*

Do-hyung Kim

Seoul Christian University

Unlike the New Testament,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rûah* in the Old Testament have not been so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in terms of frequency and quantity. Although not an active discussion of the Holy Spirit of the New Testament, *Pneuma*,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the Old Testament and provided with diversity in translation, is a subject of sufficient interest in itself. However, now that the basic and essential meaning and concept of *rûah* have been studied, it is necessary to ask why the importance of *rûah*, especially God's presence, should be raised.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change in the use of *rûah*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Among them, it is not difficult to find cases or characters in which the progress of the case is sharply turned or changed due to the clear difference between when the *rûah* of God confronts people or does not.

The *rûah* of God in the Old Testament cannot be solved by the problem of the presence and stay of God. The fact that the *rûah* of God was present and left to certain characters cannot be dealt with only in a dichotomous dimension. The problem is that the more human inner and self-consciousness is emphasized, the more the *rûah* of God is introduced as a hidden or hidden figure. Rather, God's *rûah* continues to stay in the

www.kci.go.kr

past, present, and future, regardless of our will. The *rûah* of God is by no means obtainable through human efforts, such as the beginning of life and the grace of salvation. It must be remembered that it is a gift that God brings with him and another form of existence. The *rûah* of God is in the present progressive form. Therefore, not only the Israelites of the Old Testament, but also the modern believers, are left to sincerely repent to God and return (*shûb*).

key words

rûah, God's *rûah*, Presence of God, Self-consciousness, *shûb*

투고일 : 2024년 10월 21일

심사일 : 2024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11월 30일

www.kci.go.kr